

마다

반복·각각 — ~마다

명사가 가리키는 경우마다 어떤 일이 되풀이됨을 나타냅니다. 어떤 단어에도 형태가 하나뿐이고 외울 예외도 없습니다. 어려운 점은 한국어가 언제 매를 더 선호하는지 아는 것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용법	형태	예
반복되는 시간	명사 뒤에 마다	주말마다 등산해요
간격	수 + 단위	삼 년마다 열려요
각각의 개체	차이를 함축	사람마다 달라요
모든 명사	형태 변화 없음	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
한자어 표현	매 + 명사	매일, 매주, 매년
함께 쓰지 않음	매와 마다	매일 또는 날마다 — 매일마다 (×)

■ 언제 쓰나요

시간 명사에 마다가 붙으면 반복되는 일정을 나타냅니다: 주말마다 등산해요 (주말마다 등산한다). 간격을 나타내는 말에 붙으면 빈도를 나타냅니다: 삼 년마다 열려요 (3년에 한 번씩 열린다).

셀 수 있는 명사에 붙으면 ‘하나하나 각각’이라는 뜻이 되며, 거의 언제나 차이를 드러냅니다: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. 실제로 모두가 같다면 마다는 알맞지 않습니다. 마다는 서로 다름을 부각하기 위한 조사입니다.

한국어에는 한자어 접두사 매도 있어 앞에 붙습니다: 매일, 매주, 매년. 마다와 뜻이 겹치지만 조사가 아니며, 둘은 결코 함께 쓰지 않습니다. 둘 다 가능한 경우 매일이 일상에서 더 흔히 쓰이고, 날마다는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.

■ 예문

- 1 버스가 십 분마다 와요.
- 2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.
- 3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웃어요.
- 4 주말마다 등산을 해요.
- 5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.
- 6 해마다 여행을 가요.

■ 비교

매

매는 접두사로 한자어 시간 명사 앞에 붙고, 마다는 조사로 어떤 명사 뒤에나 붙습니다. 매는 조금 더 격식 있게 들리며 정해진 단어에만 쓰입니다.

매일 운동해요. / 날마다 운동해요. — 매일마다(×)

모든

모든은 명사 앞에 와서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모으고, 마다는 대상을 따로따로 하나씩 봅니다.

모든 사람이 왔어요. (모두 한꺼번에 왔다) / 사람마다 달라요. (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)

언제나

언제나나 계속 이어지는 상태로서의 ‘항상’을 뜻하고, 마다는 하나하나 떨어진 경우를 셉니다.

언제나 친절해요. (늘 친절하다) / 올 때마다 친절해요. (올 때마다 매번 친절하다)

■ 주의

- × 매일마다 운동해요.
- 매일 운동해요.
- 매와 마다는 둘 다 ‘~마다, 매번’이라는 뜻이라 함께 쓰면 뜻이 겹칩니다. 매일이 나 날마다 중 하나를 고르세요.
- × 사람마다 생각이 같아요.
-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.
- 마다는 개체 사이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한 것입니다. 모두가 같다면 모든 사람이나 다들 쓸세요.
- × 마다 주말에 등산해요.
- 주말마다 등산해요.
- 마다는 조사이므로 언제나 명사 뒤에 옵니다. 한국어에서 명사 앞에 붙는 것은 매 같은 접두사뿐입니다.